

한국제과제빵산업응용학회 정식 발족

산학협동 통한 기술발전 목표...초대 회장 주현규 박사



▲ 주현규 회장(가운데)과 임원들. 왼쪽부터 본지 홍성대 편집국장, 배승환 간사장(고려대 교수), 고원방 부회장(미소맥협회 한국지부장), 홍행홍 고문(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교장), 조남지 부회장(혜전대 교수), 김영모 부회장(대한제과협회 강남서초지회장), 서정웅 부회장(한국제과기능장협회 회장), 임현양 부회장(신라명과 부사장), 이시경 감사(건국대 교수), 이선우 고문(베이킹타임즈 사장).

국내 최초의 제과제빵연구학회인 한국제과제빵산업 응용학회(Korean Society of Baking Application : 이하 학회)가 지난 6월 10일 정식으로 발족했다.

학회는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국내 제과제빵 기술을 과학화, 대중화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제과제빵 관련 대학 교수, 업계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지 홍성대 편집국장의 사회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초대회장에 한국농화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선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인 학계 원로 주현규 박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밖에 학회 창립총회 준비위원장였던 혜전대 호텔제과제빵과 조남지 교수, 미소맥협회 고원방 한국지부장, 신라명과 임현양 부사장,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서정웅 회장, 대한제과협회 김영모 강남서초지회장, 경희대 이광석 교수 등 6명을 부회장으로 인준했다. 또 고문

에는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홍행홍 교장과 베이킹타임즈 이선우 사장이, 간사장에는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배송환 교수가 각각 인준됐다.

연 4회 학술지 발간, 학술 세미나 개최


이날 창립총회에서 대한제과협회 권상범 회장은 최인수 사무총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업계와 학계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국대 식품영양학과 김성곤 교수는 “학회가 긴밀한 산학협동을 통해 제과제빵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학회는 앞으로 우선 정규학회 등록을 목표로 연 4회 학술지를 발간할 계획이다. 정규학회로 등록되면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 정부 학술재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회의 위상 및 공신력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제과제빵 학

술 세미나를 개최해 현장과 이론의 접목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회는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할 평의원회 및 총무간사, 학술간사, 재무간사, 사업간사 등 실무진 구성을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학회에 등록된 회원은 약 300명 선으로 이중 학생회원이 14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등으로 나뉘는데 정회원은 제과제빵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 학생회원은 제과제빵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의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간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회비는 정회원 3만원, 학생회원 1만5천원이다. 현재 학회의 사무실은 임시로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내 혜전대 제과제빵과 행정실에 마련돼 있다(문의 02-841-6041). 

〈글 / 손인수 insu@mbakery.co.kr〉

인터뷰

“베이커리 시장 발전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할 것”

한국제과제빵산업응용학회 주현규 초대 회장

한국제과제빵산업응용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주현규 박사는 고려대학교 농화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교수 및 동교 농축대학원 원장, 그리고 한국농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선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식품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논문을 남겼다.

취임 소감으로 주 회장은 “초대 회장의 중책을 맡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이 학회에서 그동안 축적, 발전해온 제과제빵 현장 기술이 이론의 수혈을 받아 더욱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데 학회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 회장은 “우선 연 4회 학술지를 발간해 제과제빵 이론을 정립, 발전시키고 산학협동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개해 제과제빵 기술을 진흥시키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